

iM FX Brief

원화의 마이웨이(My Way)

FX Brief

[경제] 박상현 2122-9196 shpark@imfnsec.com

주간 동향: 유가 급등에도 원화는 강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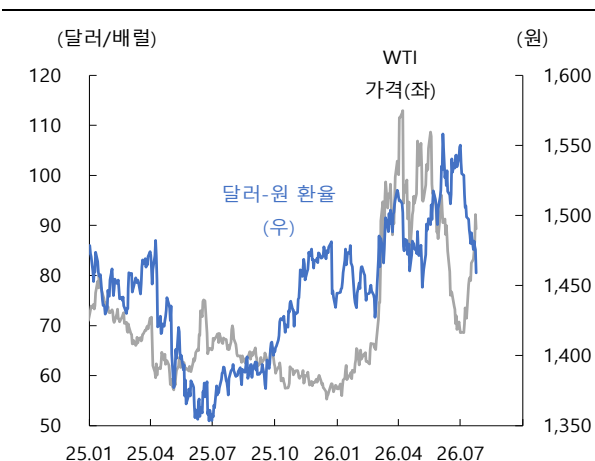
- 미국-이란간 군사충돌 격화에 따른 유가 급등 영향으로 달러화는 전주대비 강세를 보임. 또한, 미국 10년 국채 금리 급등도 달러 강세 압력을 높임
- 유로화는 재차 약세 반전함. 브렌트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상회하고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위협 등이 유로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함
- 달러-엔 환율이 39년만에 163엔을 돌파하는 등 엔화의 강한 약세 기조가 유지됨. 일본 정부의 개입이 강력한 직접개입보다 기대와 달리 구두개입 수준에 그치면서 엔 약세 기조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
- 위안화는 뚜렷한 재료 부재 속에 중국 정부의 위안 강세 의지에 기대어 강세 흐름을 이어감
- 호주달러는 약보합세를 이어감. 달러 강세와 이란발 불확실성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강화 여파 등으로 호주달러는 소폭 약세를 기록함
- 원화 강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짐. 달러 강세 및 유가 급반등 그리고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라는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달러 수급 여건 개선에 기댄 원화 강세 현상으로 달러-원 환율이 1,450원대까지 급락함

	7월 24일 종가	전주 대비 (%)	전년말 대비 (%)
달러화 지수	101.5	0.70	3.20
유로-달러	1.137	-0.60	-3.20
달러-엔	163.8	0.88	4.54
역외 달러-위안	6.77	-0.08	-2.92
호주달러-달러	0.70	-0.07	4.59
달러-원	1,458.5	-1.85	0.96

금주: 원화의 마이웨이 현상, 분수령을 맞이할 수 있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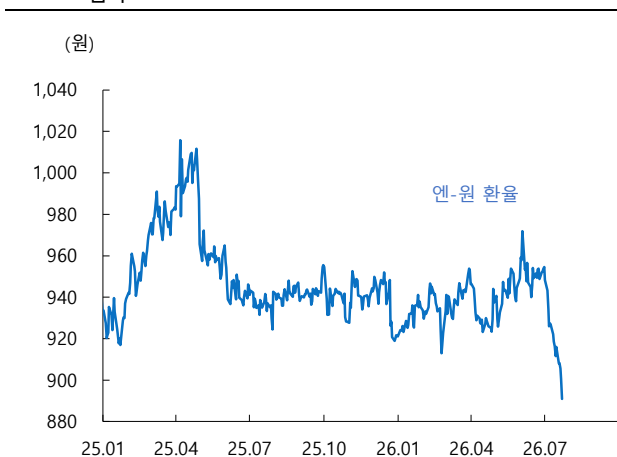
- 미국의 대이란 공격 확대 여부, 7월 FOMC 회의,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그리고 미국 주요 빅테크 실적 발표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금주에는 글로벌 금융시장내 빅 이벤트가 많다는 점에서 달러 등 주요 통화의 변동성 역시 확대될 여지가 큼. 특히, 유가 추가 상승 여부와 7월 FOMC 회의 결과가 달러화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
- 각종 대외 불확실성 리스크 속에서도 달러 수급 개선에 기대어 주요국 통화 흐름과 달러 강세 기조를 이어온 원화 흐름도 이번주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할 수 있음. 이란 리스크 증폭 및 FOMC 회의 이후 연내 금리인상 기대감 강화 등으로 달러-원 환율이 반등할 여지가 있음. 반면 미국-이란간 충돌이 소강국면 혹은 협상 돌파구를 찾거나 FOMC 회의에서 연내 금리인상 힌트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달러-원 환율의 추가 하락도 기대해 볼 수 있음. 금주 달러-원 환율 밴드는 1,430~1,490원으로 예상

그림1. 유가 급등에도 달러-원 환율 하락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2. 원-엔간 차별화 현상 심화 속 엔-원 환율 890원 수준으로 급락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Compliance notice

-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 -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